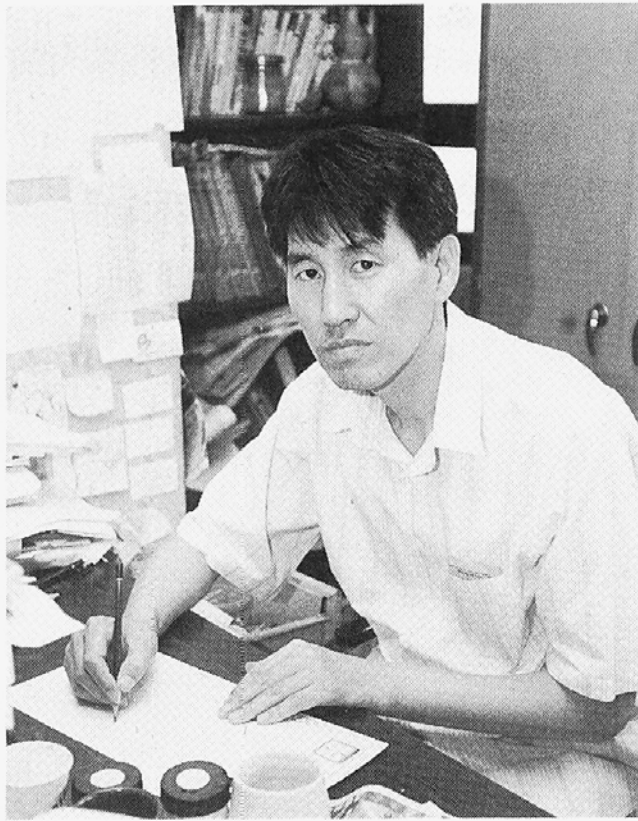


# 매일 백척간두서 '만평화두' 풀기

## 산문박의 筆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



“저는 날마다 하나의 화두(話頭)를 풀기 위해 인간됨을 씁니다. 오전 편집회의부터 오후 마감시간까지 그날의 만평(漫評) 주제를 풀기 위해 골몰하지요.”

한겨레신문의 얼굴이자 최고 인기코너인 ‘한겨레그림판’을 빛어내는 시사만화가 박재동씨(43).

자신의 처지(?)를 “나날이 명을 단속하며 사는 신세”라고 표현하는 그는 언제나 몇 초후의 스타트 총성을 기다리는 육상선수처럼 긴장 속에 깨어 있지만, 가까운 삶의 얘기나 사회적인 이슈를 내면화해 빈 백지에 그려내는 자신의 작업을 힘없는 구도행(求道行)으로 본다.

그는 하나의 그림을 낚는 산고(産苦)를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의 진일보(進一步)’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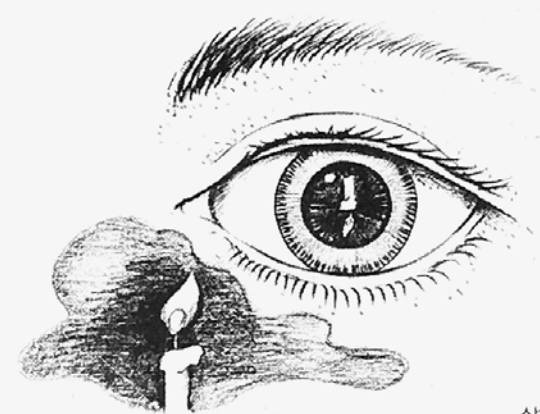
화두 삼은 주제를 푸는 열쇠인 아이디어가 앞뒤로 막혔을 때 그에게는 언제나 ‘마감시간’이란 절벽이 기다리고

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도(中道)를 지킬 줄 아는 언론인이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비판의식(勇氣)이 “시민들의 참지돈을 모아 설립된 신문사의 자본구조와 1번씩 죽었다 살아난(해직된) 경력이 있는 겁없는 기자들의 근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 “개인은 악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도 그와같은 든든한 배경 덕분에 위력을 발휘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조심성 있게 그림을 그린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과 금권(金權)이 아닌 자신의 그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뜻밖의 피해자들이다. ‘만화’라는 고도의 추상성과 집약성을 지닌 그림이 행여 뜻하지 않은 의미까지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언론의 횡포를 걱정할 줄 아는 중도적인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날카롭고도 신랄(辛辣)



심화·이기선

## 사실을 직시하는 정견 갖자

시장경제에서 쓰이는 말 중에 파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여 사람의 생각을 흔들리게 한다. 백척간두나 슈터에서 내놓은 현수막이나 광고에 쓰여진 ‘가격파괴’ 문구는 좋은 예다. 도대체 가격파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격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나가야 한다. 생산이 과잉되면 자연히 소비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구매자의 소비성향이 증대되면 시장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거래의 기준인 것이다.

소비자 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물건의 풀기 현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폭등하여 일부 사람들도만 독점하는 경제 악순환이 발생한다.

하지만 생활필수품의 가격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요사이 상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통사람은 이에 따라 갈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참고공개 참고달이 가격파괴 이러한 용어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손쉽게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뜻으로 내다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기묘한 암수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가격파괴 속에 숨은 암수

가격이 파괴되었다면 가격이 폭락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구매자는 싼 가격에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생산자가 생산이 이 하로 낮추어 준다니 얼마나 고무인 일이 아닌가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당

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 줄 알면서도 당장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에, 미구 구입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좁은 집안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된다.

부처님은 언제나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의 참다운 형성 과정을 바르게 파악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상적 측면으로 보고 그 원인적 발생, 동기, 진행성장의 전 과정을 도외시키고 다만 즉물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없으면 답답하게 생각하고 비감에 빠지게 된다.

몽상서 벗어나도록 노력

그러나 즉물적 현상을 정견으로 인식하면 증감, 생멸, 유무에 매이지 아니하고 연기적 실상으로 지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33

전도(顛倒)

### 과정 도외시키고 결과만 중시

생산자의 창고에서 개인집의 공간으로 창고이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자의 창고에는 새로운 상품을 보관, 유통하게 되니 별개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이다. 이것은 창고탈이라는 어감에 시민이나 소비자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또한 가격파괴라는 광고전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현명하고 똑똑한 듯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둔한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범부적 생활을 하지 않고 영리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불교용어에 전도몽상(顛倒夢想)이란 말이 있다. 실제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앞에 사실적인 현상이 있

도된 사고가 아니라 정립된 사고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몽상이 있을 수 없다. 몽상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몽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기 본위의 정위에서 생활하게 된다.

창고를 비운다. 창고를 털어 놓는다. 가격을 파괴한다 등 생산자가 어떤 수단으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만이 필요하다 고 정견적 구매의식으로 생활한다면 정상적 생활인이 될 것이다.

사람은 바른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바른 눈은 도착된 현상에 빨려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몽상적 비전에 마음을 끌어들이지 않는 자각상태가 온전함에 발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견의 안목이 흐린 사람은 비전이란 몽상에 전도되고 착시하는 현물을 보고 살아가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 용기있는 비판·다수 위한 中道 경전 통해 배워 승가 그림판 4년째 작업... “작품은 구도행 산물”

있으며, 이를 뛰어넘기 위한 필사의 도전이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지는 행위로 표출된다는 것.

진퇴양난의 시점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신을 집중할 때 막혔던 벽이 뜰어지고 절벽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화두가 빛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치 선승(禪僧)의 경성(見性)이 몸을 던지는 불퇴전(不退轉)의 순간에 나타나듯...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회피하면 잡아먹히지만 죽기살기로 맞서면 때려잡을 수 있다”는 용기와 배짱,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 항상 생명력있는 그림판을 뛰어내는 그는 게으름과 현상유지, 그리고 일상(日常)에의 안주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나 젊고 신선하며 과격적이다.

비독격언에 ‘갑자무공(法者無功)이요 탐자견망(貪者見亡)이라’는 말이 있다. 겁을 내는 자는 공을 못세우고 욕심을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 비취볼 때 그는 ‘용기가 있어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음에도 과욕을 부리지 않

유일개?

그만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여유는 이러한 독특한 시·공 속에서 엮어진다. 그러나 그의 독특한 개성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 미대 시절, 자신만만하게 살아 가던 그가 어느날 우주와 인생과 자아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삶은 깊이를 더해 갔다. 온갖 의문 속에 쌓인 문제의식은 무위식 중에 그를 불교의 큰 바다로 이끈 것이다.

불교라는 큰 바다에서 그는 <한글 팔만대장경> <순타니파타> 등의 불교서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정립하게 됐다. 특히 초기불교의 서적들은 부처님의 육성을 들려주는 듯해 방황하는 미술학도에 게 더없는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가 경험한 또 하나의 감동은 ‘진정한 스승의 사랑’을 체험한 일이다. 그는 당시 부산에서 해산(海山)스님이란 대덕(大德)을 통해 “부모의 사랑도 애인의 사랑도 아닌 가장 숭고한 스승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

“당시 온갖 아픔에 빠져 있던 나는 스님을 뵈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속에 가득한 온갖 의문 덩어리가 눈물듯이 사라졌으며 다만 ‘올바르게 살면 되지’하는 마음만 들더군요.”

그는 이때 처음으로 자만에 차 있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

스스로 찾은 불교와의 인연으로 그는 4년전 승가대신문 편집장이었던 보천스님을 만나면서 ‘승가그림판’을 그려오게 있다. 이처럼 승가그림판에 애착을 가져 온 것도 “작품활동을 하나의 구도행”으로 보는 그의 세계관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친절과 우애를 나누며 사는 사회가 불국정토”라고 말하는 그는 “구도자라면 개인의 자기완성을 통한 해탈과 함께 역사적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는 중생을 위한 불국정토의 실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김재경 기자



한 풍자의 칼을 한 협객(俠客)의 풍모를 지녔으면서도 고요한 사색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수행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함께 지녔다.

그는 매일 점심식사 후 1시간 가량의 신문사 근처 효창공원에서 산책을 겸한 사색으로 보낸다. 그토록 바쁜 사람이 그토록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으로 만화기다운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禪이 가져다 주는 여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 '95 전국 청소년 하계 특기 수련대회

1. 행사명 : '95 전국 청소년 하계 특기 수련대회
  2. 주 제 :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3. 취 지 : 불교청소년의 보다 건전한 육성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진취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
- 일 시 : 1995년 7월 28일 ~ 7월 31일 (3박 4일)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참가대상 : 불교 청소년 150명 (선착순)  
참가회비 : 25,000원 (기념T-셔츠, 교재 지급 및 범주사 답사)  
(1인 소요경비 70,000원 중 45,000원은 본부에서 지원)
4. 수련내용
    - 가. 과정 프로그램 : 만남의 시간, 조별시간, 과정후련
    - 나. 교양 프로그램
      - 강의 - ① 세계 속의 우리 청소년의 역할
      - ② 불교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법문)
      - ③ 영리한 자아발전
    - 민속놀이 한마당, 공동체놀이, 즐거운 한마당
    - 우리는 하나 - 주한 외국인과의 만남
    - 사경, 심성개발
  - 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 탈춤체조
  - 라. 작업활동 프로그램 : 만들기 시간

5. 준비사항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복장, 랜턴, 발우공양준비 (공기 또는 대접 4개, 수저, 깔판, 보자기)
6.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7. 후 원 :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신문사
8. 신청마감 : 7월 13일 (목) 오후 6시까지
9. 접수 및 문의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3층 (전화) 02-735-8165, 733-5138 / (팩스) 02-722-6623

- \* 기 타
- 회비를 직접 접수하지 못할 경우는 아래 은행으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국민은행 / 예금주 : 청교연 / 계좌번호 : 023-01-0504-027)
  - 은행으로 입금하신 분은 행사당일 입금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행사 당일 오후 2시까지 수련장으로 개별 도착하여야 합니다.
  - 교통편
    - 서울 / 동서울 시외버스터미널, 서울 남부시외버스터미널
    - 속리산 행 직행버스(속리산 유스타운까지 도보 10분 거리)
    - 대전 / 대전 → 보은 시외버스터미널 → 속리산 행 직행 버스 (속리산 유스타운까지 도보 10분 거리)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박현성 합장